

우리시대의 추천도서 '오늘의 책'

良書 선양운동의 한 모범...출판역량의 상징적 척도 제시

책의 문화를 드높이는 작은 디딤돌

국내에서 간행된 각종 도서들 가운데 좋은 책을 선별, 추천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창조적인 작업이 어떤 지향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왔던 '오늘의 책' 운영위원회(대표간사 金彦鎬)가 지난달 25일 한국출판학회(회장 安春根) 제정 제 11 회 한국출판학회상 특별공로부문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늘의 책'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말 제 18 차로 마감된 '오늘의 책' 선정작업을 결산하는 「오늘의 책 선정도서 총목록」(한길사)을 최근 펴내, 향후 어떤 형태로든 다시 전개될 양서운동의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총목록」은 특히 우리 당대에 가질 수 있는 '양서목록'의 최선의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출판문화의 수준과 역량을 가장 단적으로 가늠시켜 주고 있기도 하다. '오늘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들이 결코 좋은 책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우리시대 책의 문화를 드높이는 하나의 작은 발판이요 디딤돌이 될 수는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의 책'은 '오늘의 책' 선정작업이 이루어지던 기간 동안의 우리 출판문화의 총체적 역량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있는 상징이자, 나아가 진지하고 활력있는 출판문화 진전의 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5년간 519종 선정

'오늘의 책' 선정작업이 처음 발기된 것은 지난 1983년 8월의 일이다. 뜻을 모은 몇몇 출판인들이 학계 전문가들과 더불어 대중소비문화체제 속에 점차 왜소화돼가는 출판문화의 '명예와 영향'을 회복시키고자 시도되었다. 즉, '오늘의 책'을 표창하고 공시시킴으로써 저술인에게는 보다 창조적이고 책임있는 저술의욕을 고취시키고, 출판사에는 양식있는 도서문화에의 소명감을 북돋아주고, 서점에는 양서보급의 문화적 직분을 확인시켜 주며, 독자들에게는 좋은 책에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양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같은 취지 아래 박명호(민음사), 김경희(지식산업사), 김윤수(창작과비평사), 김병익(문학과학지성사), 이기용(열화당), 조근태

1983년 이후 5년간 출판계의

양서운동으로 주목을 끌었던

'오늘의 책' 선정작업이 마감되고,

그 결산으로 최근 「오늘의 책 선정도서

총목록」이 간행됐다.

'오늘의 책'은 우리 출판문화의

역량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

의미있는 상징이자, 나아가 우리

출판문화 발전의 한 디딤돌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암사), 김언호(한길사), 김진홍(전예원), 이갑섭(평민사), 최동식(정음사), 박종만(까치), 정필영(을유문화사), 이재철(홍성사), 김종수(한울)씨 등 출판사대표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변형운(서울대·경제학), 강만길(고려대·한국사), 유종호(이화여대·영문학), 조요한(숭전대·철학) 김용준(고려대·화학), 정창렬(한양대·한국사), 김진균(서울대·사회학), 진덕규(이화여대·정치학), 안병영(연세대·정치학), 이선영(연세대·국문학), 이중한(서울신문·출판평론), 신용하(서울대·사회학), 소홍렬(이화여대·철학), 이상옥(서울대·영문학), 장희익(서울대·물리학), 성완현(인하대·미술평론), 송상용(한림대·과학사), 이명현(서울대·철학), 이대근(성균관대·경제학), 정운영(경제평론), 정진홍(서울대·종교학), 최장집(고려대·정치학), 김문환(서울대·미학), 박성래(외국어대·과학사), 김인환(고려대·국문학), 최재현(서강대·사회학), 최원식(인하대·국문학)교수 등 사계의 전문가들이 선정위원으로 위촉, 3개월 단위의 분기마다 평균 30종 이내의 책을 선정하여 지난해 말까지 모두 18차에 걸쳐 519종의 책을 '오늘의 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는 조각가 심정수씨가 제작한 '오늘의 책' 모뉴먼트가 주어졌다.

이 과정에서 선정의 원칙으로 지켜진 것이 ① 사전류 제외 ② 교과서용으로 집필한 저서 제외 ③ 아동도서 제외 등이다. 이는 '오늘



지난 1983년부터 5년간 실시된 '오늘의 책' 선정작업은 우리시대의 출판역량을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의 책'이 주로 일반단행본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가능한 한 일반적 공중수준에 적합한 도서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것을 노력'한다는 선정의 또다른 원칙과 더불어 '오늘의 책'이 지향하는 바를 뚜렷이 드러낸다. 그것은 이른바 평균적인 교양인을 위한 책을 찾아내고 추천하는 일이다.

그 결과 「오늘의 책 선정도서 총목록」에 드러난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몇몇 특별하게 의미있는 전집물을 제외하면 일반단행본이 압도적인 주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오늘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들을 펴낸 출판사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총목록」에 의하면 '오늘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들을 펴낸 출판사는 모두 130여사에 이르는데, 그중 10종 이상씩이 선정된 12개 단행본 출판사가 519종의 50%가 넘는 262종의 '오늘의 책'을 펴내고 있음이 그 단적인 증거라 할 만하다. 물론, 이는 이제 우리 출판계에도 '명문'출판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의 책'으로 상징되는 양서출판의 역량이 출판계 전반에 '골고루' 확산돼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출판역량의 극심한 '편재성'이 '오늘의 책' 선정작업을 비교적 단명에 그치게 한 원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그것들은 책으로 표현된 우리의 지적, 문화적 역량을 가장 모범적으로

제시하는 우리시대의 추천도서라 할 만하다. '오늘의 책'은 '오늘의 책' 선정작업이 진행됐던 1983년~87년까지의 의미있는 지적, 문화적 결실들을 거의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일련의 국학관계 저술들은 특히 팔목할 수준이다. 국학관계 저술이 여타 부문에 비해 훨씬 더 창조적일 수 있다는 이 점은 차치하더라도, 주로 역사를 비롯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 방면의 저술들이 '오늘의 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韓永愚), 「韓國家族制度史研究」(崔在錫), 「洪大容評傳」(金泰俊) 등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가 한국일보사 제정 한국출판문화상 등 해당연도의 다른 출판관계상도 같이 수상하고 있음은 이런 사정을 잘 반영하는 하나의 실례가 된다. 좀 부풀리자면, 국학관계 '오늘의 책' 선정도서목록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연구사적 업적으로도 정리될 만하다.

국학관계 개인저술이 특히 많아

이들 본격적인 연구서들이 주로 저술의 측면에서 최선의 수준을 보이는 책들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 역시 '오늘의 책' 선정도서목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련의 번역서들은 또다른 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것들은 최근의 우리 문화가 벌어오려는 외국의 참조들과 그 참조들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시사해준다.

예컨대, 제3세계 문제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제3세계의 정치경제학」 「제3세계와 외채위기」 「제3세계의 변동과 구조」 등)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번역서의 경우 원저 자체가 지니는 가치 못지 않게 번역의 질을 또한 선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어 '오늘의 책'이 이 기간에 이루어진 번역의 성과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책'으로 선정된 번역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오히려 교양용 과학도서들에 잘 나타난다. 「오리진」(리처드 리키 외 저, 김광역 역), 「수학의 확실성」(클라인 저, 박세희 역), 「바다, 그 환경과 생물」(토오손 저, 홍재상 역), 「마이크로전자기술과 사회」(프리드리히스 외 저, 정인호 역), 「우주의 역사」(콜린 윌슨 저, 한영환 역), 「과학의

역사」(스티븐 메이슨 저, 박성래 역)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필자에 의해 씌어진 과학도서가 적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과학혁명」(金永植), 「이야기 韓國科學史」(서울신문), 「과학의 길」(주동일), 「한국의 과학문화재」(전상운) 등이 있기는 하지만, 과학도서출판에 관한 한 국내필자의 참여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오늘의 책' 선정도서 목록은 보여준다.

그밖에 '오늘의 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들이 있다. 대체로, 우리 문학의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이 골고루 망라돼 있는 편인데, 그러나 「英雄時代」(李文烈), 「太白山脈」(趙廷來), 「노동의 새벽」(박노해) 등을 제외하면 이른바 베스트셀러의 성가를 떨친 작품들은 거의 들어 있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여기서도 잘 팔리는 책과 좋은 책과의 이율배반적 관계가 다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염상섭, 최서해, 김우진, 서정주, 황순원, 고은 등의 개인전집도 '오늘의 책'으로 등재돼, 우리 문학이 이제 그 문학적 유산을 축적하고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책 그 자체로서 어떤 문화적 가치를 담보하는 책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의 발견」(뿌리깊은나무 편), 「朴壽根 1914~1965」(오광수 편)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하나의 책이 여러가지 의미에서 문화적 협업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단순히 저술의 차원에서 잘 씌어졌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획과 집필, 편집, 제작의 전 부면에 걸쳐 성숙된 문화적 역량의 총화가 이런 책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 주목돼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오늘의 책'인가

'오늘의 책'을 포함하여 좋은 책을 선정하고 공지하는 작업은 애초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다분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다. '오늘의 책'의 경우, 많은 전문학자들의 참여로 선정자 개인의 자의성을 어떤 공통분모로 지양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정자집단의 자의성까지 희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엄숙주의'로 지칭될 만한 현상이다. 즉, '오늘의 책'으로 선정된 책들이 한마디로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오늘의 책'은 "선정위원은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선정도서에 대해서 거부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일반교양인의 관점에서 선정되고 있지만, 선정자집단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일반'교양인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상향조정된 교양인의 관점일 수 있다. 따라서, 애초의 선정 목적과는 달리 '오늘의 책'이 누구를 위한 오늘의 책이냐는 의문이 제기됨직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우리 출판의 현실적 조건으로서 '쉬운 책'으로서의 '좋은 책'이 드물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책'을 통해 드러난 좋은 책과 어려운 책과의 관계는 이중한씨의 적절한 지적대로 "어느 한 책을 쉽게 씌으로써가 아니라 어느 한 책을 읽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단행본을 위주로 선정함으로써 드러났던 '오늘의 책'의 한계는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돼야 할 양서운동의 좋은 참고로 삼을 만하다. 즉, 일부 단행본 출판사들이 '오늘의 책'을 독과점하는 현상은 해당 출판사가 좋은 필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혹은 좋은 원고를 판별하는 능력이 뛰어난가 하는 점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출판사들이 '오늘의 책' 선정작업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오늘의 책' 선정작업은 출판인 스스로에 의한 우리시대 양서선양운동의 한 모범을 보였다든 점에서 충분히 의의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보다 범출판계적인 양서선정 및 보급운동이 새로운 차원으로 활성화하기를 기대해본다.

— 강철주 기자

저작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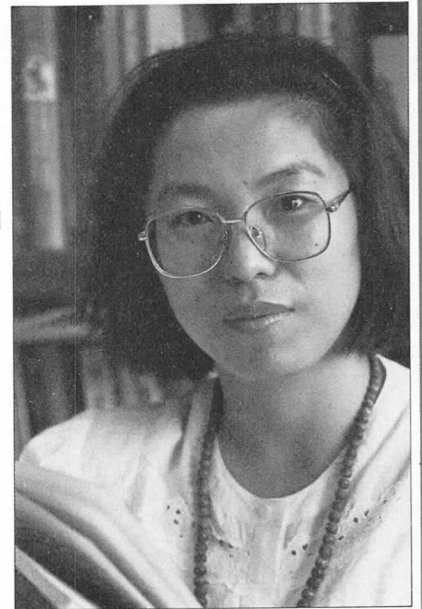
남녀 불평등의 인류학적 고찰

「家父長制의 기원:성차별의 기원」

조옥라

서강대 교수 · 인류학

무계급사회, 즉 수렵채집사회나 원시농경사회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을 여성학적 시각에서 재조명해보고 싶다.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하여 현재와 같은 불평등관계 속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는 여성 연구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대부분의 여성 연구자들은 현대사회의 성차별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두 축 속에서 강화된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이 두 요소들의 결합 내지 지배·종속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에서 전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성차별 분석, 더 나아가 사유재산제가 확립되지 못한 사회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요인에 대한 논쟁을 분명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가 정착되지 못한 사회, 소위 무계급사회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연구들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와는 다른 생산, 사회, 종교관계들을 제시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혀줄 수 있다.

여성문제에 강한 개인적 관심을 갖고 있는 인류학자로서 무계급사회, 즉 수렵채집사회나 원시농경사회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을 여성학적 시각에서 재조명해보고 싶다.

물론 인류학이란 학문이 천만년전의 초기 인류인 라마피테쿠스로부터 현대인까지, 그리고 수렵채집사회에서 현대의 후기산업사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그 전문영역도 형질, 경제, 사회, 종교, 상징, 의료 등으로 펼쳐져 있어 좁은 학문역량을 지닌 내가 가부장제에 얽힌 모든 문제들을 '저서' 속에서 포괄하여 독창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자신은 거의 없다.

특히 나의 지식이 극히 제한된 형질인류학의 자료, 그리고 다양한 민족지적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들을 전부 소화하여

토의하기가 내 능력에는 부친다. 그래서 내가 구상하는 「가부장제의 기원」이란 저서는 전체적으로 내가 써내려가기보다는 일부 논문의 예를 번역 내지 편역하여 보충하면서 구성할 생각이다. 다행히 최근에 여성학 석사논문 중 이 분야로 다룬 것이 있어, 그 필자와도 의논하여 그 논문을 재구성해서 함께 수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따라서 책의 전체 구성은 4부로 생각하고 있다. 1부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제 기원과 연관되어 전개되어온 논의의 정점들을 재평가한 후 인류학적 접근이 이러한 논의에 기여한 바를 다룰 것이다. 여기서, 母系사회가 母權사회인가?, 성이 평등한 사회란 어떠한 사회를 의미하는가 등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를 할 것이다. 특히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이론들이 성차별의 기원에 대한 엥겔스의 주장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의 견해를 모르간의 「고대사회」와 비교하여 다루겠다.

2부에서는 형질인류학자의 논문, 수렵채집사회, 원시 농경사회에 대한 예들을 번역하여 해설과 함께 첨부하려고 한다. 3부에서는 여성억압문제를 다룬 여성학 논문을 수록하고, 4부에서는 가능한 한국고대사회에 관한 자료들을 재해석하여 이제까지의 인류학자들의 논의와 관련하여 남녀, 가족관계를 다루겠다.

이러한 저서의 구성은 현존하고 있는 성차별의 구조가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가를 지적하고, 성차별 구조를 이루는 변수들이 전체 사회구조와 어떻게 만밀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여성억압의 고리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